기여입학제 필요악인가 교육투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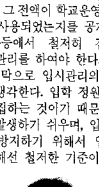
최근의 입시부정, 등록금투쟁 등 사학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여입학제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학재정난 타개를 위한 최후의 방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교육위기를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대학법인'기회에 이어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논의를 게재한다. 모쪼록 이 논쟁을 통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활발한 논쟁과 토론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註〉

기여입학 필요

기부금입학이란 다소 입학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의 입학을 위해 대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잘못 생각하면 돈이면 모든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돈으로 입학하여 학위를 산다고 반대한다. 물론 이와 같이 반대하는 분들의 견해가 옳은 점도 많은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말고 보다 긍정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기부금 입학이 사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부금 입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각 교수들의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학에 입학만 하면 학위를 준다는 사고 방식을 버리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적당히 공부하는 학생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며 진짜 학문을 하고자하는 학생만이 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위는 주는 것이 아닌 획득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최근 각 대학에서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주는 학사경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자로서 이 사실을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철저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발전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정 연 모
〈공대교수·전자공학〉

기부금입학이 가져오는 첫번째 문제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불러 일으키고 교육기회균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넓게 생각하면 기부금입학으로 인해서 등록금이 줄며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풍부한 교육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가 있다. 즉 공부할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이는 넓은 의미의 교육기회균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기부금으로 지은 빌딩이나 시설물의 이름을 기부자의 이름으로 짓고 다른 학생들은 기부자에게 시설과 재정으로 도와준데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한다. 입학생은 규정에 따라 정원대로 모집하고 추가로 모집된 몇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대다수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의분배 효과도 볼 수 있다.

두번째 문제로써는 기부금으로 늘어난 만큼의 학교 수입에 비례하는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위해서는 수입재원의 공정한 관리가 그 생명이다. 법적으로 그 장치가 마련되어서 그 전액이 학교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공개하며 교육부등에서 철저히 감사를 통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시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입학 정원 이외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음이 발생하기 쉬우며, 입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학생에 대해선 철저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입학자격은 합격선의 예를 들면 80%이상에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되며 정원의 3% 정도로 모집하다는 등의 조건이다.

덧붙여서 만일 우리가 합격선의 80%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을 기부금입학으로 모집했을 때 그 입학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입학자격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과연 입학할 자격이 없는데 돈 때문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인가?

실제로 입학생들의 담안지를 채점하여 합격과 불합격 사이를 정원에 의해 자르다가 보면 비록 불합격을 하기도한다. 이들이 합격선의 80%만되어도 수업을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사회, 즉 정부와 기업체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 보다는 사학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학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교차원에서 발전위원회를 학과차원에서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가 기대와 차서 추운 겨울을 견디어 왔던가?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새 봄이 찾아오듯이 학교에는 신입생이 들어오고, 새학기가 시작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희망찬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갖가지 부정과 부패, 비리, 모순 투성이었던 과거의 우리 정치와 나라 살림, 국민의식이 한번에 다 바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묵은 가지가 잘리우고 새 순이 돋아나고 새로운 바람 속에 알찬 열매를 다짐하는 시대에 나 자신이 꽃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 비좁고 삭막한 분위기를 다소나마 부드럽게 해주고 있다. 적아소심을 비롯하여 군자란, 사란, 동설란, 튼주란, 타래란 등 그저 평범하고 누구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것 한 두개씩을 얻어 가꾸고 있다. 이번 고위 공직자들의 새로운 임명과 함께 전국 기부금입학은 적극 찬성하며 현실을 고려할때 이것만이 사학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사학의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그 시행에 대해서는 무조건이 아닌 조건부 찬성론자이다. 즉 학사관리가 철저하고 입시관리 및 기부금을 포함한 학교운영비 관리의 법적인 장치가 반드시 확립되었을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여입학 반대

1991년 8월 교육부는 대학기여입학제의 채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사회전체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근간 몇몇 대학에서 부정입학 사건이 속출함으로 인해서 대학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의 비판 또한 높아졌다.

그러면 대학기여입학제의 문제가 대두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기부금입학제가 입학조건부로 기부금 일정액이상을 지불하면 대학에 입학을 허가해 주자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대학입학자격을 돈을 주고 사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여입학제는 부정입학의 양성화 일 뿐이다. 여기서 '기여'란 뜻은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기여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후손, 교직원의 자녀, 재단관계자들의 자녀 혹은 사회계층에서 선택된 특수계층의 자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게 된다.

송 미 섭
〈사범대 교수·교육학〉

그외에 기부금 입학은 정원외의 일정 비율, 예를들면 정원의 2%라던가, 정원내의 미등록 합격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발상, 즉 보결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학정원은 각 대학의 교육환경과 사회적 인력수요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기부금 입학생은 정원외로 뽑으니까 또는 보결생이니까 타당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으므로 그 설득력이 미약하다. 오히려 정원외에 뽑는 기부금 입학자는 교육환경 공해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필자는 기부금입학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민주주의 이념,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금 입학제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념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의한 기회균등이어야 한다. 부모의 제정능력이 자녀의 대학입학을 보장한다면 많은 중등교육자들의 교육에 대한 사명과 대학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부모의 제력이 자녀의 학습능력을 보장한다는 연구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학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학생의 부모(아무리 재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대상이 학생임으로 학생의 학습능력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 대학의 사명중의 하나이다.

얼마전 외교관 자녀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주어 특별히 입학시킨 대학을 상대로 그 외교관 자녀때문에 대학입시에 불합격한 학생의 부모가 합격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부당성을 인정하여 외교관 자녀의 합격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것은 부모의 부와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기여 정도에 따라 자녀의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것은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의 대학입학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의 존폐가 검討기 때문에 기부금입학제를 반대한다. 한마디로 기부금입학제는 대학입학을 학생측에서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되고 대학측에서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된다. 아무리 거액의 기부금을 대학입학조건으로 받아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대학입학기회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합리화하여 그 도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실적주의와 능력주의의 가치관이 도전을 받게 되고 황금만능주의라는 가치관이 관을 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의욕이나 가치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돈 있으면 대학 들어가는데 굳이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기부금입학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빈부차이와 사회적 지위 차이 때문에 이들 두 부류간의 국민적 위화감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부모가 부를 어떤 방식을 통하여 축적하였든간에 부를 가지고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혜까지 공공연히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부를 갖지 못한 부모의 좌절감과 분노는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국민적 감정은 정부의 정책 및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소수의 재벌자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자녀가 대학입시에서 떨찌이 모자라 커트라인에서 떨어졌을 때 1, 2여이면 대학입학이 허용된다고 할 때 그것을 감수해야 할 부모들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가? 1, 2점을 1, 2억원으로 사는 경우가 될 것이며,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이면 부모된 마음에 안 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경우 돈이 없는 부모들은 자식들로부터 무능한 부모로 취급될 것이다. 최근 과외비조차 대지 못하는 부모들의 비극은 이를 증명해 준다. 이들 소외된 계층의 갈등의 심화가 사회에 미칠 심각성은 상상할 수 조차 없다.

그러므로 기부금입학제는 민주주의 이념,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할 좋은 방안이 안된다는 것이다.

국고지원·사학재정난 속 최선의 대안
입시·학사관리보완 필요한 조건부찬성

허 종
〈외대교수·영문〉

교육기회균등 돈으로 재단할 수 없어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위화감 조성

강단시론

난초의 교훈과 새봄을 맞이하는 희망

아침, 저녁의 미풍이 제법 달게 느껴지는 요즈음 산과 들에는 신록의 여린 녹색이 우리 눈을 빨아들일 듯 다가오고, 고속도로변에는 벌써 개나리가 노오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철 이르게 느껴지리 만큼, 벌써 온도가 높은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목련이 하얀 꽃 봉오리를 터트리고 있는 것도 보인다.

"겨울이 오면, 봄도 또한 멀지 않으리"(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라고 영국의 시인 셸리는 노래했다. 우리는 이 시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며 얼마나 온 어떠한 것을 버리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다짐으로 새 날들을 맞이해 볼까 반성해 본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불법 등으로 나라가 소란한 지 한달,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이함에 온 국민 하나하나가 긍정적인 자세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할 때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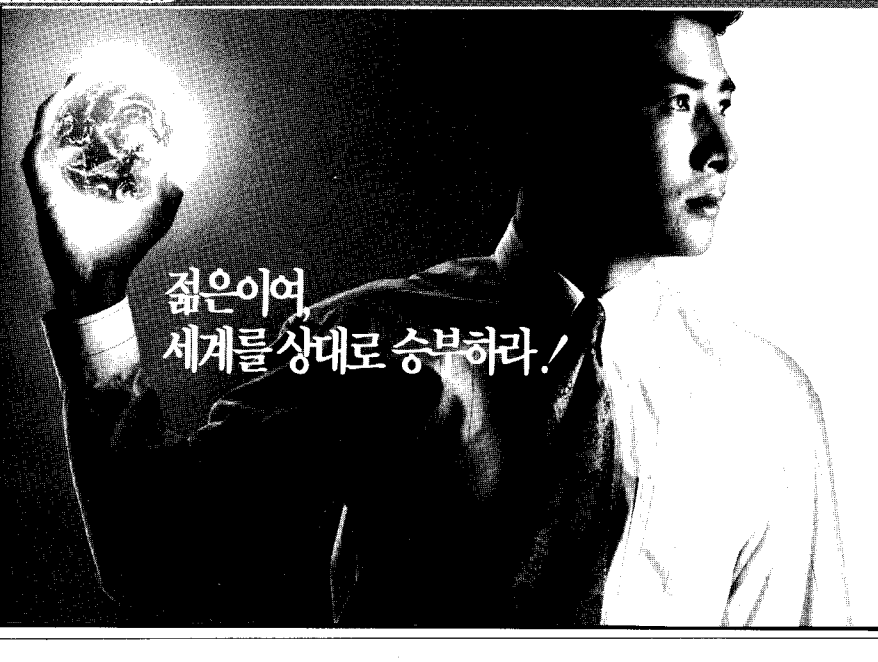
나의 조그마한 연구실에는 철따라의 유명 난원의 난초들이 동이났다는 소문과는 달리 나의 연구실 화초들은 값도 안나가고 뇌물성이 것도 없으나 그 난초들은 아마도 가장 행복한 화초들 중 하나일 것이며, 내게는 소중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화초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정성이 지극하기에 행복할 것이요 둘째, 나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을 그로부터 배우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얼마전 글을 읽다가 좋은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모든 화초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것이다. 주인의 성격이, 정성이 그대로 전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 건실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것,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정성,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난을 통하여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 지나친 햇빛을 쐴어하므로 온인자중한 군자의 도를, 지나친 물을 피함으로 탐심을 버리기를, 작은 공간을 좋아함으로 절제와 내핍을, 은은한 향기로서 겸허함과 청순함을 가르쳐주며 통풍과 습기의 조절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삶의 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뿌리의 물주머니는 인내와 저축과 관용을 일깨우니 '춘추좌씨전'에 '난유국향'이라 칭찬하였으며, 공자께서도 난초를 '왕자향(王子香)'이라 하여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한다. 즉 어느날 공자께서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잠초가 무성한 곳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옴을 보고 "난향은 사람이 옆에 없다고 해서 방향을 풍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다음부터 집에서 수신적덕에 힘을 기울이어 훌륭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공자와 같은 깨달음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직자, 사회 지도층 모두가 난초를 선물로서, 재산가치로서, 자랑거리로서 다루지 말고 수신적덕의 표본으로 대하고 정성을 들였으면 우리사회는 항상 난의 향기가 은은한 사회가 되리라.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대졸 신입사원 모집

끊임 없는 기술혁신과 수출로 경제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現代
1%의 마지막 정성까지 다하는 기업정신으로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現代에서 큰 뜻을 펼쳐보십시오.

1. 모집부문 인원 및 자격 ※750명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이공계	기계공학·전기공학·건축공학·토목공학·조선공학·산업공학·전자공학·전산학·수학·물리학 *무점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 또는 무전공자	500명	●정규 4년제대학 93년 8월 졸업예정자 (단, 기졸업자는 93년도 각군 전역자 및 7월말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함) ●1965년 1월 1일(석사는 63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 전학과	25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 2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1통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3년 4월 6일(화)~4월 15일(목)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공휴일도 접수함)
나) 장소 : 현대인력관리위원회(우편번호 :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스포츠 클럽(비원옆) 1층(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전 화 : 746-3232, 3233

5. 기 타
가) 육·해·공군 장교 출신자는 우대함
나) 우편접수는 동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93년 4월

現代 인력관리위원회